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로베르 슈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focusing on the life and idea of Robert Schuman**

최용준(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ristian root of European Union movement. It was a new movement in Europe after the 1<sup>st</sup> and 2<sup>nd</sup> world war, trying to make war impossible by creating the international higher authority in Europe. This article, first investigates how this movement was begun by Robert Schuman after the 2<sup>nd</sup> world war. Furthermore, it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this movement to see how it was rooted in Christian values of freedom, equality, human rights, unity, solidarity and peace.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what kind of contribution it has mad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ation to Korean context.

Key Words: European Union, Robert Schuman, Freedom, Equality, Human Rights, Unity, Solidarity, Peace

## I. 서론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은 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체제로 모든 분야를 새롭게 변화시킨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 통합 운동의 중심에는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이 있었다. 그가 프랑스 외무장관으로 1950년 5월 9일에 발표한 슈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은 평화와 연대를 통해 유럽인들을 하나로 묶는 대담한 제안이었고 그 후 이 제안은 구체화되어 현재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이 슈망 선언은 아마도 현대 유럽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며 1990년대 동구권 철의 장막의 극적인 붕괴 또한 이 선언 이후 유럽의 통합이라는 발전적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슈망 선언은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연설이었지만 오늘날 28개국 5억의 유럽인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나아가 그의 이러한 선언 및 헌신적인 활동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유럽 대부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역사의 대부분이 실행된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가치들과 비전이 종종 무시되거나 잊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회원 또는 협력국으로 참여하지만 이 유럽 통합 운동의 뿌리를 잘 모르고 있으며 중부 유럽 및 동유럽 또한 이 운동의 근원을 종종 오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당시 프랑스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sup>1)</sup>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sup>2)</sup> 총리가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의 유명한 랭스 대성당(Cathédrale Notre-Dame de Reims)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기독교가 화해의 종교임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다. 나아가 이 기념예배가 끝난 후, 수십만 명의 양국 학생들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간 서로의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들로서 우정과 이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슈망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어권에서 이 슈망의 비전을 되살리기 위해 제프 파운틴(Jeff Fountain)<sup>3)</sup>은 *Deeply Rooted*라는 책을 출판했다(2014). 또한 자일스트라(Jurjen Zeilstra)도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및 전쟁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독교회들 간의 일치와 평화에 대한 희망과 유럽의 민족들 및 국가들 간의 연합과 평화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입증했다(Zeilstra, 199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독교적 정신인 평화, 일치, 연대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 버렸는데 슈르마허(T. Schirrmacher)는 이 슈망의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Fountain, 2010: 13).

이 슈망의 유럽연합운동에 관해 영어(Fountain, 2014; Krijtenburg, 2012; Pelt, 2000), 독일어(Mittendorfer, 1983) 및 프랑스어(Lejeune, 1986; Schirrmann, 2008; Roth, 2008; Lejeune, 2000)로 된 연구물들은 많으나 한글로 된 연구는 거의 없고 어떤 목회자는 유럽 연합이 오히려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조용기, 2013).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슈망의 생애와 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가 유럽 정치와 신앙을 통합하여 새로운 연합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전혀 적그리스도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이 기초해 있음을 밝히고 이것이 유럽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산 및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겠다.

- 1)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가, 군사 지도자, 정치인 및 작가로 1945년 6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임시 정부 주석, 1958년 6월 1일부터 6개월 총리로 재직했고 1959년 1월 8일에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1969년 4월 28일까지 재임하였다.
- 2) 독일연방공화국의 초대 총리로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의 당수를 지냈고 1951년부터 1955년까지는 외무장관을 겸하기도 하였다.
- 3) 뉴질랜드 출신으로 1975년에 네덜란드에 와서 국제선교단체인 YOUTH WITH A MISSION 사역을 시작한 후 1989년에 유럽 전체 YWAM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그 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유럽연합운동 배후에 슈망의 기독교적 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 II.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 1. 로베르 슈망의 생애와 사상

#### 1) 로베르 슈망의 생애

로베르 슈망은 태어날 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1886년 6월 29일 룩셈부르크(Luxembourg)의 클라우센(Clausen)에서 출생한<sup>4)</sup>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으나 프랑스와 독일의 영토 분쟁지역이었던 알자스로렌(Alsace Lorraine)지역이 독일 영토가 되면서 독일 시민이 된 반면 어머니는 룩셈부르크 출신이었다. 로베르는 혈통주의(*jus sanguinis*)의 원칙에 따라 태어날 때에는 독일시민이었으나 1919년 알자스로렌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는 등 평생 국적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자란 그는 항상 '국경인(border person)'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는 로베르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사에 데려갔으며 경건 서적을 읽게 하였다. 로베르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1896년부터 1903년 간 룩셈부르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1904년부터 1910년간은 베를린(Berlin), 뮌헨(München) 본(Bonn) 및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성경, 신학 및 철학도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중세 철학의 전문가였으며 특히 자끄 마리탱(Jacques Maritain)을 존경했다고 한다.

1911년에 모친이 마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슈망은 가톨릭 사제가 되어 종교적인 삶에 귀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친구 헨리 에쉬바흐(Henri Eschbach)가 '오는 시대의 성인들은 민간인 성인들(les saints de l'avenir seront des saints en veston)'이라고 말하자 슈망은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는 것보다 무신론자들이 살도록 돕는' 삶을 살라는 신적인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Fountain, 2010: 43). 또한 독일에서의 학업을 통해 1871년부터 1878년까지 비스마르크 총리가 문화투쟁(Kulturkampf)을 통해 가톨릭교회에 미친 영향에 알게 된 후,<sup>5)</sup> 그는 종교적 관용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교황 레오 13세가 가톨릭의 사회적 교리를 정리한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sup>6)</sup>을 읽은 슈망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경제에 바탕을 둔 관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슈망은 사회 활동에 헌신하여 1912년에 알자스로렌지역의 메츠(Metz)에 법률사무소를 개원했으며 1913년에는 메

4) 그의 생가는 현재 MAISON R. SCHUMAN(슈망 하우스)로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le Centre d'études et de recherches européennes Robert Schuman (CERE, 로베르 슈망 유럽 연구 센터)로 쓰이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cere.public.lu).

5) 문화투쟁은 1871년에서 1878년까지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신생 독일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로마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었다. 이에 저항하던 프로이센 주교의 절반이 투옥 또는 추방되었고, 네 교구 중 한 개, 수도사와 수녀의 절반이 프리시아를 떠났으며, 수도원과 수녀원 3분의 1이 폐쇄되었고, 1800명의 교구 사제들이 투옥 또는 추방되었으며, 수천 명의 평신도들도 성직자들을 도운 죄로 투옥되었다. 그러자 가톨릭 신자들은 자체적으로 정당(독일중앙당)을 만들어 대항했고 결국 비스마르크는 이 정책을 철회하였다(ko.wikipedia.org/wiki/문화투쟁).

6) 1891년 5월 15일에 공포한, 사회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교황 회칙. 문자적으로 "새로운 것들에 관하여"라는 뜻이지만 내용은 자본과 노동의 권리 및 의무들이며 당시 열악한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사회주의와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를 제창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입법을 권장하였다. 이것은 노동 문제에 대한 가톨릭 원칙을 공식화한 것으로 현대 가톨릭 사회이론의 기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피우스 11세의 *Quadragesimo anno*(1931), 요한 23세의 *Mater et magistra*(1961) 및 요한 바오로 2세의 *Centesimus annus*(1991)에 의해 보완되었다(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츠에서 독일 가톨릭 대회(Katholikentag)를 조직하고 지원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메츠가 독일령이었으므로 그도 독일군 부대에 보충병으로 소집되었으나 건강이 나빠 대체 복무로 변경되었다. 1차 대전 후 알자스로렌 지방이 프랑스로 돌아오면서 슈망은 정치적 야망이 거의 없었지만, '레룸 노바룸'에서 그린 정의롭고 관대한 사회를 향해 일할 기회를 인식하여 1919년 모젤(Moselle)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33세의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슈망은 알자스로렌 지방에 시행되던 비스마르크 법령을 프랑스 대도시의 법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령 파리는 교육의 강제적인 세속화와 국가 사회보장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대부분의 알자스로렌 주민들은 비스마르크가 그들에게 우수한 사회보험을 주었다고 믿었고 슈망도 동의했다. 문화투쟁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알자스로렌에서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및 유대인들도 학교를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슈망은 각자 양심을 따라 자신 종교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위해 맹렬하게 싸우면서 파리의 중앙집권정책은 비민주적이며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에서 지역에 고유한 자유와 이점들을 보장하는 법은 '슈망법(Lex Schuman)'으로 알려져 있다.

전 독일 학생친구들과 폭넓은 교류 및 가톨릭 사회 활동을 통해 국제주의적 시각을 갖게 된 슈망은 프랑스 또는 독일인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경계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류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과 호의의 연대를 인지했으며 그가 참석했던 가톨릭과 외교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그는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존중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실력, 겸손함, 청렴함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 전쟁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의 반복적인 재선을 보장하여 1928년에 그는 띠용빌(Thionville) 동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32년에 재선되었다. 1936년에는 까뜨놈(Cattenom) 지역 상임의장(General Councilor)에 당선되었으며 1940년 레노(Jeal Reynaud)<sup>7)</sup> 및 뻬땡(Henri Pétain) 정부(3월-7월)<sup>8)</sup> 산하 난민 협의회 의장 비서로 지내다 9월 14일 게슈타포(Gestapo)<sup>9)</sup>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이런 모욕을 당한 최초의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1941년 4월 13일에 독일 팔라티네이트(Palatinate)의 노이슈타트(Neustadt)에서 가택 연금되었으나<sup>10)</sup> 1942년

7)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변호사로 1940년 3월 21일부터 1940년 6월 16일까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총리 및 중도 우파 민주공화동맹 부총재였다.

8) 프랑스의 군인이자,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무공으로 한때 프랑스의 국부로 칭송받았으나, 제2차 대전 동안 나치독일에 협력하여 프랑스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비시 프랑스(Vichy France)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의 점령 하에 있던 남부 프랑스를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통치한 정권으로 프랑스에서는 비시정부(Régime de Vichy)라고 부르며 정식 명칭은 프랑스국(L'État français)이다. 파리 남쪽에 있는 비시를 수도로 정하고 전쟁에 대해 중립을, 나치독일에 대해 독립적 외교관계를 구축하였으나 1942년 핏불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이 남부 프랑스까지 진주하여 사실상 멸망했고 통제권은 프랑스 군정청으로 넘어갔으며 그 후 비시프랑스는 이름만 2년을 더 유지하다 소멸했다(ko.wikipedia.org/wiki/비시\_프랑스). 뻬땡은 거의 절대 권력을 장악했고 '사회적 위계질서'를 지지하면서 공화당의 이상인 '자유, 평등, 우애'를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적, 부계 중심적, 반국제적 및 반가톨릭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감되었다. 전후, 뻬땡은 반역죄로 총살되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드골은 그가 1차 대전에서 세운 공로를 감안하여 종신형으로 감형했다(Keyserlingk, 1972: 4).

9) Geheime Staatspolizei의 준말로 나치 독일의 비밀 국가경찰이다.

10) 독방에 감금된 지 7개월 후, 슈망은 심사를 거쳐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다. 심문관은 아데나워가 쾰른(Köln) 시장이었던 1932년에 슈망이 쾰른을 방문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공모자임을 입증하려 했고(Schuman, 2010: 68-69) 1938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히틀러(A. Hitler)에 의해 축출된 많은 유명한 시민들을 만났던 것도 심사 대상이었다. 신임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뷔르켈(J. Bürckel)은 오스트리아에서 일했던 잔인하고 효율적인 독재자로 슈망을 다하우(Dachau) 강제수용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로렌에 있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나치 정권을 지지하도록 회유했다. 힘틀러(H. Himmler) 무장친위대(SS: Schutzstaffel) 부장의 동료였던 뷔르켈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고위직 제의를 통해 슈망을 달래려 했다. 그는 슈망에게 여러 주제들에 대해 독일어로 기사를 쓰도록 요청했는데 그의 이름으로 된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나치 선전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슈망은 나치 독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

8월 1일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프랑스에서 지하운동원이 되었다.<sup>11)</sup>

1944년 9월에 모젤로 돌아온 그는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46년에 재선되었고 재무위원회 위원(1945년 11월-1946년 5월)을 역임했다. 1947년에는 라마디어(Ramadier) 정부(1월에서 11월까지)의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프랑스 총리(1988년 11월부터 7월까지)직도 수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후 유럽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핵심 중재자 역할을 했다. 가령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sup>12)</sup> 마셜 플랜(Marshall Plan)<sup>13)</sup>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up>14)</sup> 등이다. 하지만 1950년 5월 9일 그가 유럽 최초의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제안한 슈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사된다면 유럽에서 전쟁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슈망은 프랑스 정국의 제 3세력으로서 프랑스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하는 정책을 주장했으며 프랑스 외무장관으로 그는 194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프랑스의 목표는 민주적인 유럽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 후 1949-50년까지 그는 유럽과 북미 여러 지역에서 강연회를 열며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마침내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정부도 슈망 선언에 동의했고 독일을 비롯해 모든 유럽 국가들의 석탄철강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 또한 즉시 동의했으며 이태리와 베네룩스 3국도 동의한 결과 1951년 4월 18일 파리회의에서 이 6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유럽 역사상 최초의 초국가단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나중에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현재와 같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이 탄생하게 되었다.

1951년 슈망은 모젤의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1955년에는 마침내 유럽 운동(European Movement)의 대통령이 되어 1961년까지 재직했다. 1955-56년에는 다시 프랑스 법무장관을 지냈고 1956년에는 모젤의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고 1958-60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ary Assembly)의 의장으로 재직하다 1962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공직에서 은퇴했으며 1963년 9월 4일 씨-샤젤르(Scy-Chazelles)에서 세상을 떠났다.<sup>15)</sup>

## 2) 로베르 슈망의 사상

려고 교묘히 대화했고 뷔르켈이 슈망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제한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 그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레지스탕스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동부 전선에서 독일의 사상자들과 자원들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림을 만들었고 1942년 초에 이미 연합군의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홀로코스트 정보를 자유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탈출방법을 찾으려 했다(Fountain, 2014: 46-48).

- 11) 그는 ‘코르돈니에(Cordonnier, ‘구두수선공’)'라는 위조신분증을 만든 후 1942년 8월 1일, 경계가 느슨한 보초를 피해 탈출하여 그 지역의 수녀원과 수도원에 숨었다. 그를 체포하려고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고 10만 마르크의 현상금도 걸렸으나 13일간 700km를 이동한 그는 뵘와띠에(Poitier) 동쪽 몽모히용 (Montmorillon)에 있는 경계선을 통과해 마침내 프랑스로 왔다(Fountain, 2014: 48-49).
- 12) 1949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제기구로서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공동 이상과 원칙을 지지하며 국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유럽 통합을 지향한다.
- 13) 공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the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들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계획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 또는 마셜 계획이라고 불리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도 목적이었다. 전체적으로 120억불(2016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불)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 14) 국제 군사기구로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의해 창설되었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집단 방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15) 2007년에 개관한 씨-샤젤르의 로베르 슈망 하우스(Maison de Robert Schuman)는 그의 연설 및 저술들을 보관하고 있다. 파운틴은 슈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성경적으로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슈망 센터(The Schuman Center: www.schumancentre.eu)’를 설립했다.

그렇다면 슈망은 어떻게 이런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둔 유럽 통합이라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먼저 그의 독특한 성장배경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알자스로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서 자라났다. 이곳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킨 곳이며 그 결과 슈망은 여러 번 국적이 바뀌었고 나아가 그는 인류역사상 가장 처참한 제 1, 2차 세계대전을 직접 체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 지역을 두고 벌인 분쟁은 결국 이웃 유럽인들을 전면전으로 끌어 들여 20세기 전반에만 두 번이나 유럽은 초토화되었다. 따라서 그에게 ‘평화와 화해’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존적이고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구체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성경에 기초한 그의 세계관이다. 모친을 통해 독실한 신앙을 물려받은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자주 수도원에 가서 깊은 기도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히틀러의 패배 이후 수년간 유럽을 지배 하던 증오와 불신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 황폐화되고 분열된 유럽을 어떤 기초와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일치와 단결의 성경적 비전을 발전시키면서 유럽 국가들 간에 전쟁의 악순환을 영구히 단절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따라서 그의 책임의식에 동기를 부여한 가치는 분명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 있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유럽의 토대와 대안이 되어야 함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사회화론적 우생학, 무신론적인 합리주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중심주의 나아가 파시즘과 같은 세계관들로 유럽을 재구성하려던 수십 년간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미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회복과 올바른 적용에 달려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셋째로 그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국제정치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럽연합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실천 방안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그 결과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다. 당시 전후 서유럽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칫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시작된 마셜 플랜을 통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슈망의 제안으로 결성된 나토에 의해 이전에 서로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이 군사동맹을 맺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불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슈망은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라는 도덕적 분위기가 조성된 새로운 국제공동체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 결과 그의 주도로 전쟁 후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랑스와 서독의 화해는 전후 유럽통합의 중심역할을 했고 나아가 슈망 선언을 통해 열매 맺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 현재의 유럽 연합을 통해 유럽은 지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로 그는 관용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차이도 분명히 인식했다. 빼명의 천주교가 다른 신념들에 대해 반동적이고 편협했던 반면 슈망의 세계관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었다고 믿었다. 나아가 교회는 국가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나 정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22:21). 이러한 슈망의 사상은 그의 모든 정치적 행동을 인도하며 동기를 부여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슈망법’은 성경의 평등 원칙에 기초해 다른 신앙에 대한 관용을 구현한 것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사람들은 원래 평등하고, 인종, 피부색, 사회적 지위 또는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본다면, 국가들 역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랑과 자선이라는 기독교적 사회관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Fountain, 2010: 55).<sup>16)</sup>

다섯째로 슈망은 민주주의 또한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드골의 민족주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런던으로 드골이 그를 초청한 것도 거절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 평등의 원리, 형제애의 실천, 개인의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존중은 모두 슈망이 이해하는 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세계관이 실제로 적용되자 유럽은 수세기에 걸쳐 변화되었고

16) 슈망은 그의 선언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럽 이외의 국가들의 중요성도 인정했다.

결국 자유 민주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슈망은 기독교적 원칙들이 유럽 문명의 특징이 되었고, 17세기 합리주의자들도 사실상 인권과 시민의 권리를 이 원칙에서 도출했다고 보았다. 슈망은 현대 철학자들인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마리땡(Jacques Maritain)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는 사랑이 주된 원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복음주의적이라고 생각했다(Schuman, 2010: 43-51).

그는 과반수 투표에만 바탕을 둔 헬레니즘 시대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끝날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섬김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즉,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며 이 목표는 평화적으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했다. 슈망에게 있어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민주주의 원칙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웃 민족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유럽의 미래는 매우 기독교적이며 민주주의적이었다. 유럽은 기독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이러한 뿌리에서 단절되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및 동정심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또한 그는 종교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국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국가는 사회적 붕괴를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신앙의 비범한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Fountain, 2010: 57).

마지막으로 경제 영역에도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웃 사랑과 연대'를 강조했다. 현대의 산업화된 유럽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는데 단순한 기독교 자선단체만으로는 더 이상 근로자와 고용자계급의 갈등에 의한 체계적 불평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슈망은 앞서 언급한 '레롬 노바룸'을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회의 새로운 연대를 제시한 지침으로 이해했다. 즉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나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는 해답이 아니었고 화해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통치할 책임이 있으며 소위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사회 내 다양한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결정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더 작은 지역사회와 협회가 가능한 자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Fountain, 2010: 58). 그러므로 슈망은 연대, 보충성 및 평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적으로 여겨지던 사람들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성경적 명령이며 그는 이것이 전후 유럽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즉, 정치와 경제 구조는 국가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지역, 국가 그리고 유럽의 모든 수준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남아 있던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도 국제적인 인권 보장에 의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각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Imago Dei*)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어 그는 음식, 피난처, 옷, 교육 및 관계 등에 대한 권리도 인권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인권 보장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슈망의 사상은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것임을 볼 수 있다.<sup>17)</sup>

## 2. 유럽 연합에 대한 오해

하지만 슈망의 사상은 다양한 반대와 오해에 부딪혔다. 첫째로 2004년에 제안된 유럽연합헌법에서 하나님, 기독교 또는 기독교적 가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는 반대했다. 특히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sup>18)</sup>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언급도 거부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sup>19)</sup>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유럽의 원칙을 설립한 사람은

17) 슈망이 남긴 유일한 책인 *Pour l'Europe*의 제3장은 제목을 아예 "유럽은 기독교적 의미에서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L'EUROPE, C'EST LA MISE EN ŒUVRE D'UNE DÉMOCRATIE GÉNÉRALISÉE DANS LE SENS CHRÉTIEN DU MOT)"라고 붙였다(Schuman, 2010: 41).

18) 1974년에서 1981년까지 제20대 프랑스의 대통령을 지낸 중도 우파 정치인이다.

19) EU 헌법 초안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불가침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자유, 민주주의, 평등 및 법치의 보편적 가치들은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인본주의적 유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사실상 성경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마틴 루터(Martin Luther)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Reichstag zu Worms)에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양심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아버지’<sup>20)</sup> 슈망은 정신적 진전이 물질적 진보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래 세대가 영적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유물론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때에만 유럽의 화해와 평화적 통합 운동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면서 경쟁적인 이념들로 분리된 유럽의 재건은 유럽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독교적 기본 가치들에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분명히 표현했다. 나아가 이러한 그의 신념은 서독의 아데나워와 이탈리아의 드 가스페리가 공유했다. 아데나워에 의하면 슈망 및 드 가스페리는 기독교적 기초에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sup>22)</sup> 이 일이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목표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적 의무라고 믿었다(Lean, 1985: 380).

둘째로 일부 목회자들도 오랫동안 '기독교적 기반에 선 유럽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의 사상에 대한 무관심했으며 오히려 의심하면서 철저한 적대감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가령 조용기는 다니엘서 강해에서 유럽이 통합되는 것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고(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EIT&artid=277)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유럽 공동체와 동일시하면서 열 개의 머리가 달린 짐승이 출현하여 로마제국이 부활할 것이라고 해석했다(조용기, 2013).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슈망의 사상 및 아데나워와 드 가스페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럽 연합은 더 이상 10개국이라 아니라 이제는 28개국 되었으며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입하려는 국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셋째로 가톨릭 신자들이 시작한 것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의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슈망의 비전에 대해 북유럽 쪽으로 갈수록 무지와 무관심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반응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스위스,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로마가톨릭교회가 사용하는 매혹적인 전략에 넘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여전히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포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Noll & Nystrom, 2005). 가령 교황 베네딕트 16 세(Benedict XVI)<sup>23)</sup>는 2008년 11월 19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대중들에게 매주 행하는 연설을 통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것은 옳다고 선언했으며(Benedict XVI, 2009: 78), 1999년 10월 31일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에서 루터교회와 로마가톨릭 지도자들은 칭의 교리에 관해 합의하였다(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2000). 나아가 점차 세속화되는 유럽에서 많은 개신교도들과 천주교도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차이점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진영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나치 정권에 의해 함께 박해받고 함께 저항하면서 이런 자각에 이르게 되어 전후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sup>24)</sup>을 함께 창당하여 독일재건의 핵심 역할을 감당했다.

넷째로 일부 개신교인들은 '브뤼셀'로 대표되는 '유럽'은 '보충성(subsidiarity)'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 집중화를 도모하는 운동으로 보면서 반대한다. 액톤(Acton) 경<sup>25)</sup>의 유명한 경고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하

20) 1960년, 나중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된 유럽 회의(European Assembly) 첫 의장으로 2년간 연임한 후, 로베르 슈망은 공식적인 기립박수로 '유럽의 아버지'로 인정받았다.

21) 1956년 3월 12일 국제 가톨릭 기관들의 연합 모임에서 한 연설.

22) 1951년 8월 23일 아데나워가 슈망에게 보낸 편지. 드 가스페리는 당시 이태리 총리였다.

23) 이전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당시 라칭어(Ratzinger) 추기경으로서 이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4)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 중 한 가지는 민주적 정당의 분열이 궁극적으로 나치당의 부상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의 연합당, 즉 기독교민주연합당을 창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정치적 전통에 영향을 깊게 받은 범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정당이 설립되었다. CDU는 1945년 6월 26일 베를린에서 창설된 이후로 1950년 10월 21일 첫 번째 전당 대회까지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그 전당 대회에서 아데나워 총리가 당수로 지명되었으며 지금도 독일의 최대다수당이다(ko.wikipedia.org/wiki/독일\_기독교민주연합).



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므로 지방분권화를 더 강조한다. 나아가 유럽 전역에 비성경적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일부 유럽연합 기관들의 지침에 나오는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및 다른 사상들은 유럽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beast)이 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하지만 파운틴은 바실 흠(Hume, 1994)같은 가톨릭 주교들로부터 주류 교회 지도자들의 통찰력 있는 보고서들과 연설들을 발견한 후 브뤼셀에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건물인 벨라이몽(Berlaymont)<sup>26)</sup> 밖에서 YWAM 리더십 팀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들 중 일부는 이 '벨라이짐승(Berlaymonster)'의 어딘가에 모든 유럽인들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빅브라더(Big-Brother) 컴퓨터가 있다고 주장하는 종말론적 예언자들의 주장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건물에 들어 서자 보안 요원에게 여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 공무원이 따뜻한 악수와 함께 “형제님들, 우리 기도로 시작 할까요?”라는 친근한 말로 인사하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슈퍼컴퓨터에 관해 묻자 안내원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 얼마나 무식한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 후 유럽을 재건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던 국가들을 화해시킬 필요성을 알게 된 소수의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 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Fountain, 2014: 23).

### 3. 유럽 연합 운동의 과정

#### 1) 슈망 선언

1950년 5월 8일 월요일, 슈망은 미슐리히(Robert Mischlich)에게 자신의 계획을 요약한 서신을 비밀리에 아데나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슈망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프랑스 내각회의가 끝날 무렵 마침내 다음과 같은 아데나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이 프랑스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것이다. 그것은 내 조국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유럽을 연합하는 초석이다.” (Fountain, 2014: 35)

그러자 슈망은 내각회의에서 긴급히 새 의제를 제안하면서 이 계획과 서독의 동의 서한을 공개했다. 결국 프랑스 내각은 그날 저녁 6시에 외무부가 있는 퀘이 도르세이(Quai d'Orsay)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이 제안서를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및 미국 대사들에게 공문이 급히 전달되었으며 200명의 언론인들에게 초대장이 보내졌다. 그날 저녁 6시,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소수 저널리스트들과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왔다.

슈망은 선언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세계 평화란 위협과 동등한 규모의 창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 후 과거 유럽을 연합하려던 프랑스의 노력은 실패하여 전쟁이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유럽의 통일은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와 독일 간에 구체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해묵은 적대감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프랑스 정부가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생산을 각 정부의 권위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고등 기관의 감독 하에서 진행하고 다른 유럽국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공통 기반을 조성하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위한 탄약 생산에 몰두해 온 동시에 가장 지속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낸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인데 여기서 슈망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자르(Saar) 및 루르(Ruhr) 산업 지역을 주로 언급했다. 이러한 생산 연대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

25) 액턴 남작(John Emerich Edward Dalberg-Acton, 1st Baron Acton: 1834-1902)은 영국의 가톨릭 정치인이며 역사가이다.

26)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건물이름. 원래 이름은 Dames de Berlaymont으로 이곳에는 300년 된 수녀원 및 여자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유럽집행위원회 건물이 들어오면서 브뤼셀 남쪽으로 옮겼다. (en.wikipedia.org/wiki/Berlaymont\_building#Background)

하게 만들 것이며 생산의 일치는 경제 통합을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진정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것은 양국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평화로운 성취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그러면 유럽은 아프리카 대륙을 발전시키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통된 경제체제는 국가들 간의 더 넓고 깊은 공동체로 발전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따라서 프랑스, 서독 및 기타 회원국들을 묶는 초국가적 연합체의 설립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필요한 유럽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Schuman, 2010: 145-151).

이것은 3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슈망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다른 참가국들 간의 협력,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유럽의 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제안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선언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한 서독을 평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 그 후 며칠간 세계 언론은 이 계획의 천재성과 관대함을 특종으로 대서특필했다(Fountain, 2014: 37-38). '데일리 헤럴드(Daily Herald)'는 "프랑스가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France takes the nations by surprise)"고 썼고 서독의 '보너 룬트샤우(Bonner Rundschau)'는 "프랑스에서 온 놀라운 소식(Eine Sensation aus Frankreich)"이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르 몽드(Le Monde)'는 이를 "혁명적 제안(une proposition révolutionnaire)"이라고 부르며 1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반면에 공산주의 신문인 '루마니떼(L'Humanité)'는 이 제안을 연합 전쟁을 재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소련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스위스 신문인 '지 운트 에어(Sie und Er)'는 이 제안을 한 슈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진지하고, 날선하며, 대머리이고, 환상이 없으며, 심각하지만 유머감이 없고, 청렴, 근면하고, 신앙심이 깊으며, 조용한 인물로 프랑스 공화국 정치가의 이미지에 잘 맞지 않는다. 그는 프랑스어도 잘 하지 못한다. 그의 모국어는 독일어인데, 대부분의 동료들과는 달리 그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가 겪었던 변화가 얼마나 프랑스를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징후였다. 슈망은 제 3공화국의 많은 장관들처럼 부패하지 않았고, 드골처럼 달변이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비도(Bidault)의 눈부심과 재치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직설적이고 정직했으면서도 호감을 주는 정치인이었다(Fountain, 2014: 38).

## 2) 유럽의 통합과정

1949년 5월 5일, 슈망은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궁(St James's Palace)에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정관에 서명하기 위해 갔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이 창립 서명국이었다. 슈망은 프랑스 대표로 서명하면서도 이 위원회가 인권은 보호하겠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초국가적 협의체나 민주주의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민족주의와 경쟁의 결과 과거 유럽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지구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이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적인 초국가적 연합이라는 새 시대로 옮겨야 하며 이것이 정신적 및 정치적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이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거대한 '유럽의 실험'이었다.

11일 후 스트라스부르에서 슈망은 10세기 동안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유럽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생각해 온 위대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초국가적 연합'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중세 로마카톨릭교회는 독일 황제들의 시도 및 지도자(Führertum)의 가식적인 '매력들(charms)'과 함께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어 유럽의 정신은 패권이나 타인에 대한 이기적인 착취 같은 숨겨진 동기 없이 완전한 상호주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기꺼이 섬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세기에는 봉건주의가 반대에 부딪혔고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국가들이 자신들을 앞세웠으며 국가들과 민족주의의 끊임없는 충돌을 초래한 양차 대전을 목격한 이 시기에는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국가들의 화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일성으로 각 지역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러나 슈망이 이 주제를 더 널리 알릴수록,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내적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북대서양 조약(North Atlantic Treaty)에 서명하기 위해 프랑스 대표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서방의 안정을 가져올 군사 동맹인 나토의 탄생을 목격했다. 하지만 이 조약이 정치와 군사 영역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는 보았다. 즉, 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구 생활 방식의 깊고 새로운 내적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마셜 플랜도 이미 1년간 진행되어 유럽 국가들이 산업을 현대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희망과 자립을 촉진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황폐하고 지쳐버린 유럽을 재건하는데 필수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슈망은 두 가지가 여전히 실종되었다고 느꼈다. 첫째, 정치적 의지력과 '초국가적인 연합'의 틀이었다. 슈망에게는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야 하는지 분명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로 확신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후임자인 비도(Georges Bidault) 총리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정부로부터도 거의 지지를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깊고 내적인 변화를 향한 개인적인 의지력이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모든 도움이 프랑스나 독일 또는 일반 유럽인들이 '그들의 이웃을 그들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슈망이 제안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51년 4월 15일 파리 조약을 통해 마침내 법적 현실이 되었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포함한 참가국들과는 여전히 많은 세부 사항들을 협상해야만 했지만 이것은 법이 지배하는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국의 주권을 서로 종속시키는 세계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다. 슈망과 아데나워 그리고 드 가스페리의 유럽에 대한 공통적인 신념과 비전에 의해 타협은 매우 쉽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유럽이 기독교적 기초 위에 재건축되어야 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그 비전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공동의 신념은 이 세 정치가들이 파리 조약에 서명하기 전 라인 강변에 있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열린 기도회 모임에서 이미 반영되었다(Fountain, 2014: 39). 슈망이 새로운 유럽을 위해 꿈꾼 네 개의 기둥들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장관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유럽 협의회(the Common Assembly, 현재 유럽 의회)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법원(Court of Justice)이다. 유럽의 통합 과정을 이끌어 온 많은 전략들이 원래 슈망 플랜에 있었다. 핵심 소수 국가들과 함께 앞서 나가면서, 통합에 대한 '2단계식' 접근은 1950년 5월 9일에 시작된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60년이 지난 후에 27개국의 연합체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회원국들 간에 전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슈망은 그의 유일한 책인 *Pour l'Europe*에서 새로운 유럽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장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하여금 그 운명의 시간,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길 빈다.”(Schuman, 2010: 144)

하지만 슈망도 가끔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 때 그를 격려하고 도와 준 중요한 인물은 미국의 복음전도자로 도덕재무장(MRA: Moral Re-Armament)운동을 주도하는 동시에 전후 유럽의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랭크 버크먼(Frank Buchman)이었다. 그는 그의 연설들을 모아 "세상을 다시 만들기(*Remaking the World*)"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1947) 이 책은 슈망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그 책의 프랑스어 판에 서문을 써주었다. 슈망은 버크먼과 점점 더 많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했다. 그는 룩셈부르크, 독일, 로렌의 국경지역에서 자라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말했고 그는 프랑스와 독일인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었기에 두 나라 사이의 증오를 종식시키는 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자신이 움츠러든다고 슈망이 솔직히 말하자 버크먼은 조용히 그가 현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므로 그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를 격려했다. 그 후 슈망은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버크먼의 공헌을 인정하여 명예의 전당에서 그에게 기사작위를 수여했고 아데나워도 버크먼에게 독일 공로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인정했다.

###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 운동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로베르 슈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네 가지를 결론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슈망은 준비된 유럽통합프로젝트의 설계자였고 건축가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대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국적을 번갈아 소유하였고 양국에서 공부하고 일하였으며 나아가 양차 세계 대전을 직접 경험했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이 독일인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부담과 경제 침체가 민족주의적 보호주의로 이어짐을 목격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러시아 혁명, 다른 한쪽 끝에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를 시작으로 국제 공산주의가 부상하는 것도 보았다. 이런 격동의 시대를 통해 자유, 평등, 연대 및 평화에 기초한 안정되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새로운 유럽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 그의 평생 사명이 되었다. 심지어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지만 독일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구적인 화해가 가능할지 심사숙고하여 결국 '슈망 플랜'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선언하면서 유럽 연합의 초석을 놓았다.

둘째로 그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유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그 뿌리는 기독교적 정신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지도자였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외무 장관으로 전후 유럽이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1950년 5월 9일, 파리의 외무부 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원칙하에 초국가적 민주공동체를 유럽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 단결과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도 기독교적 섬김과 이웃 사랑에 기초함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성경적 전통과 유산에서 단절된다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그리고 연민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으며 동시에 유럽의 다양성과 통일성(unity with diversity)도 기독교 세계관적 관용과 평등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뿐만 아니라 유럽평의회 및 나토를 창설하는 주역이 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양차 대전을 종식하고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의 화해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슈망은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지혜롭게 동역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아데나워, 드 가스페리 및 버크먼 등 그와 함께 한 당시 지도자들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유럽 연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슈망은 매우 설득력 있는 논리로 유럽의 평화와 연합을 이끌어 내었던 리더였다. 그는 당시 전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산업, 즉 프랑스의 철강 산업과 독일의 석탄을 초국가적 연합체가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한 제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제안하여 유럽 연합의 초석을 놓았다. 그가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이 점이 핵심임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1년 4월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이 서명하면서 유럽의 평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은 매년 5월 9일을 그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지켜 오고 있다. 이 날은 아마도 유럽의 현대사에서 철의 장막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에 유래가 없이 70년 가까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슈망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구체적인 유럽의 정치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합하여 시대적인 사명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일치와 연대의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유럽 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확신과 통합적 실천은 한국 전쟁 이후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은 이 슈망의 삶과 사상 그리고 유럽 연합운동의 역사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이 시대에 분단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와 번영 및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주변국들과도 평화와 화해를 이루도록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조용기 (2013). **요한계시록강해** 서울말씀사.

[Cho, Y. G. (2013).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Seoulmalssseumsa.

Benedict XVI (2009). St Paul-General audiences July 2, 2008-Feb 4, 2009, Ignatius Press.

Bond, M.; Smith, J. & Wallace, W. eds. (1996). *Eminent Europeans*, Greycoat Press.

Buchman, F. (1947). *Remaking the world: The speeches of Frank N.D. Buchman*, Blandford Press.

Fountain, J. (2014). *Deeply Rooted: The Forgotten Vision of Robert Schuman* Seismos Press.

Hume, B. (1994). *Remaking Europe*, SPCK.

Keyserlingk, R. W. (1972). *Patriots of Peace*, Colin Smyth.

Krijtenburg, M. (2012). *Schuman's Europe: His frame of reference*, doctoral dissertation, Leiden/The Hague.

Lean, G. (1985). *Frank Buchman, a life*, Constable & Son.

Lejeune, R. (2000). *Robert Schuman, père de l'Europe 1863-1963 : la politique, chemin de sainteté*, Paris, Fayard.

----- (1986). *Robert Schuman : une âme pour l'Europe*, Paris, Saint-Paul.

Mittendorfer, R. (1983). *Robert Schuman-Architekt des neuen Europa*, Weihert Druck GmbH.

Noll, M. & Nystrom, C. (2005). *Is the Reformation Over?*, Baker.

Pelt, J.-M. (2000). *Robert Schuman, Father of Europe*, Fondation Robert Schuman.

Roth, F. (2008). *Robert Schuman : Du Lorrain des frontières au père de l'Europe*, Paris, Fayard.

Schirmann, S. (dir.) (2008). *Robert Schuman et les pères de l'Europe : cultures politiques et années de formation*, Bruxelles, Peter Lang, coll. « Publications de la Maison de Robert Schuman. Études et travaux » (no 1).

Schuman, R. (2010). *For Europe*, ed. by Fondation Robert Schuman, Nagel Editions SA.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2000)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Eerdmans.

cere.public.lu

ko.wikipedia.org/wiki/문화투쟁

en.wikipedia.org/wiki/Berlaymont\_building#Background

en.wikipedia.org/wiki/Rerum\_novarum

ko.wikipedia.org/wiki/비시\_프랑스

ko.wikipedia.org/wiki/독일\_기독교민주연합

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QEIT&articleno=277

논문초록

**유럽 연합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로베르 슈망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유럽 연합 운동의 기독교적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 운동은 제 1, 2차 세계 대전 후 새롭게 일어난 운동으로 유럽에 초국가적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운동이 2차 대전 이후 어떻게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고찰한다. 나아가 이 운동이 어떻게 자유, 인권, 일치, 연대 및 평화라고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밝힌다. 결론으로는 그가 남긴 공헌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이것이 한국 상황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주제어: 유럽 연합, 로베르 슈망, 자유, 평등, 인권, 일치, 연대, 평화**